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 준 모
(나사렛대학교)

김 정 진*
(나사렛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 도박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시 소재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 167명을 설문조사하였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전체의 84.8%에 달해 중독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의 주요결과는, 사행산업 이용 관련 특성으로 이용빈도가 높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요인중에서는 알코올중독이 심할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중에서는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에 대한 통제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용어: 사행산업, 도박중독, 위험요인, 보호요인

이 논문은 2014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김정진, 나사렛대학교(kimjj@kornu.ac.kr)

■ 투고일: 2014.4.28 ■ 수정일: 2014.6.15 ■ 게재확정일: 2014.7.21

I.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도박의 종류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토토, 프로토), 소싸움 등 모두 7종이다. 룩셈부르크의 사행산업 업종이 2종으로 가장 적고, 미국과 일본 등은 4~6종인 점을 고려하면, OECD 국가중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허가 업종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 이와 관련한 통계를 살펴보면, 사행산업 이용자는 2003년 1억 4천여만명에서 2012년 1억 9천여만명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다. OECD 회원국중 GDP 대비 사행사업 매출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 캐나다(0.76%), 그리스(0.68%), 포르투갈(0.66%) 등에 이어 우리나라는 여섯 번째로 높은 국가로(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2013a), 매출액 및 이용자 규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마 등의 장외발매소 유치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방의 재정예 상당 부분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사행산업 매출액 대비 조세 비중은 28.2%이며, 기금출연 비율은 34.4%로 나타났다(충남대학교, 2010). 본 조사의 대상지역인 C시 장외발매소의 경우 2012년 경마 장외발매소 이용객은 417,165명, 매출액은 2,945억원, 경륜 장외발매소 이용객은 133,155명, 매출액은 459억 8천 9백만원, 경정 장외발매소 이용객은 84,835명, 매출액은 275억 8천만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b)으로 나타났다. 경마의 경우 매출액 규모로 보면 전체 30개 장외발매소중 4번째로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 그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강원, 부산 등 타 지역의 경우 도박중독치유(문제관리)센터 등 도박중독 관련 기관이 위치하여 전문적 예방과 치료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비하면, 이 지역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치료 등을 위한 전문기관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DSM-5(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서는 도박장애(gambling disorder) 진단기준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물질 관련 장애와 더불어 비물질 관련 장애로 도박문제를 중요한 독립 진단으로 다루고 있다. 도박이란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 재화나 대가를 걸고 하는 유희의 일종으로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약간의 기량을 발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스틸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예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행하여져 왔다. 여기에 물질적인 만족과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사회의 풍토와 각종 스트레스와 심리적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가

기폭제가 되어 도박 산업 발전을 부추기는 것”으로 생각된다(현미열, 조옥희, 2012: 590).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이용으로 인한 도박중독 유병률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높고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CPGI를 통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중위험 도박과 문제성 도박자를 합한 도박중독 전국 유병률이 9.5%에 달했으며, 2012년 조사에서는 7.2%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정부에서 같은 조사도구를 통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중독 유병률의 경우 영국 2.5%(The Gambling Commission, 2010), 호주 2.55%(Queensland Government, 2006), 뉴질랜드 1.7%(Ministry of Health, 2009) 등으로 나타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3a) 사행산업 과다이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중독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경우 본장에 비해 중독 유병률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자료에 의하면, 경마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이 68.0%인 반면 장외발매소는 82.9%에 달했다. 경륜과 경정도 본장 이용자의 중독 유병률은 각각 66.9%와 75.5%인 반면, 장외발매소의 경우는 각각 79.2%, 80.1%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독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독과 관련한 관리감독과 치료지원이 부족한 지역의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행산업의 실태와 유병율을 조사하거나 예방 및 정책적 제언을 하는 보고와 연구(고려대학교, 2009; 권순만 · 고재욱, 2013; 김도우 외, 201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2;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3a; 사행산업감독위원회, 2013b; 서원석, 2013; 장수미 외, 2009; 조광익, 2011; 한성열 외, 2009), 미시적인 차원에서 정신건강, 성격, 인지문제 등을 다룬 연구(김영훈, 2005; 박정열 외, 2009; Dickerson et al, 1996; Griffiths, 1995; Hamel, et al, 2007; Kennedy et al, 2010; Lesieur & Rosenthal, 1991; McCormick, 1987; Wills et al., 2001), 책임도박에 대한 연구(오은지 · 정철, 2012),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신영철, 2005; 신영철·최삼욱, 2006),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손덕순·정선영, 2007; Blaszczynski & Nower, 2002), 알코올 중독,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손덕순·정선영, 2007; 신영철, 2005; 이영분 · 이은주, 2003; Blinne-Pike et al., 2010; Griffiths et al., 2009; McCome, Lee & Sprenkle, 2014) 등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주로 사행산

업 이용자의 인지나 성격적 특성과 도박중독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일부는 부분적으로 우울이나 불안, 알코올중독과 같은 위험요인이나 가족관계, 자이존중감과 같은 보호요인과 도박중독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지역의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를 중심으로 도박중독률이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밀도있게 살펴보고 지역의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 연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인구학적 특성, 사행산업 이용 특성,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특성, 도박중독 특성 등을 알아본다. 둘째,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수, 사행산업 이용 관련 변수,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변수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셋째, 지역의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을 줄일 수 있는 개입 방향을 제시한다.

II. 문헌 고찰

1. 사행산업 이용과 도박중독

사행행위(射倖行爲)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사행행의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을 사행산업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합법적 사행산업은 관련 법의 보호와 규제를 받으며 합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¹⁾ 사행산업은 이용자들의 여가욕구를 만족시키는 순기

1) 카지노업(관광진흥법 제3조: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워트립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경마(한국마사회법 제2조: 기수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 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 경륜(경륜경정법 제2조: 자전거 경주에

능 외에 즉각적 보상이라는 특성 때문에 태생적으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행산업은 적은 돈을 베풀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므로 사행성을 가지며, 자극 추구로 인한 흥분 유발이 용이한 자극 추구성의 특징을 갖는다. 또한, 법규에 의해 합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통제력을 넘는 과도한 사행활동이 지속될 경우 도박중독으로 발전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활동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9a).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 우울증, 분노, 건강 악화, 자살 등과 같은 개인차원의 문제, 가족의 무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대인관계 단절 등과 같은 대인관계 차원의 문제, 재정적 어려움, 부채, 자산 손실, 파산 등의 재정적 문제, 실직, 장기 결근, 성과 저하 등의 직업적 문제, 절도, 경제 범죄 등의 법적 문제,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공공재정과 자선 활동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사행산업의 과대한 이용으로 인한 도박중독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은 성격특성 이론과 인지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격특성 이론에 따르면, 도박에 취약한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인 사람이 도박중독자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취약한 성격특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도박을 하는 이유가 돈을 따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박의 다른 측면들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결과로 본다. 즉 도박중독자들은 도박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각성이나 흥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이태원, 2004). 이렇게 각성이나 흥분에 중독되기 쉬운 사람들은 충동성이나 감각추구성이 높은 성격으로 분류된다(Steel & Blaszczynski, 1998; Zuckerman et al., 1972). 또 다른 유형으로 현실도피 적응장애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성격적으로 내향적이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많아 사회 적응력이 빈약한 경우가 많다. 이 유형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으며, 우울과 불안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경정(경륜경정법 제2조; 모터보트 경주에 대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고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행위), 복권(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 복표발행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 특정한 표찰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체육진흥 투표권(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출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a). 「사행산업백서」 p.6.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하는 경향이 있고 비교적 낮은 나이에 도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감각 추구 형과 달리 각성상태와 부정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하여 도박을 하게 되므로, 스트레스에 취약하여 도박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Ibanez et al., 2003). 인지이론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들은 높은 충동성 등 도박에 취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방식으로 귀인 하는 사고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Ladouceur & Walker, 1996;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즉 이들은 돈을 댔을 때는 자신의 도박기술이나 능력이 뛰어나서라고 평가하고, 반대로 돈을 잃었을 때는 운이 없었다는 식으로 실패를 귀인 한다. 또한 도박중독자들은 자신에게 운을 조절하고 시스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인지적 기대는 규칙적이고 빈번한 도박, 계속된 손해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게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이인혜, 2004). 또한, 개인적 인지적 취약성의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자아존중감은 도박중독과 연결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회피의 방법으로 도박을 탐닉하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Blaszczynski & Nower, 2002).

본 연구는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도박중독을 설명하는 성격특성 이론이나 인지특성 이론 그리고 정서적 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울, 알코올 중독,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등을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규정하였다. 대표적인 물질중독인 알코올중독의 중독자 성격적 특성은 도박중독과도 매우 큰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우울과 자아존중감은 인지이론으로 설명되는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 의사소통 등으로 드러나는 가족관계의 질은 도박중독의 심각성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 자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선행연구 고찰

도박중독의 발생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전학적 취약성과 생물학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심리적 요인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우울은 병적 도박과 관련되어 잘 알려져 있는 심리적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신영철 · 최삼옥, 2006).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병적 도박의 50% 이상에

서 주요 우울장애의 삽화가 동반되며 80% 이상에서 자살생각 내지 자살시도가 수반되고 약물과 알코올 남용의 합병률이 50%에 이르며 스트레스와 관련된 위궤양, 두통, 고혈압 등의 신체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Lesieur & Rosenthal, 1991). McCormick (1987)은 많은 병적 도박자들이 우울증으로 특징되는 만성화된 내적 결핍 상태를 지니는데, 이로 인해 도박 행동과 관련된 흥분과 자극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Dickerson 외(1996)도 도박에 관한 전국적 역학연구에서 대상 인구의 약 9%가 우울한 기분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도박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Griffiths(1995)는 도박 이전과 도박을 하는 동안 그리고 도박 이후의 기분을 측정한 연구에서, 정기적 도박자 중 약 43%가 도박 이전에 우울하거나 탈진되어 있다고 보고한 반면, 비정기적 도박자 중 약 7%만이 이전에 우울을 보고하여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도박동안의 흥분경험에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비정기적인 도박자들의 약 33%와 정기적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약 83%가 흥분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이에 Griffiths는 도박 이전에 우울한 기분이 도박 행동으로 줄어들고, 도박 동안의 흥분이 정기적인 도박과 병적 도박을 강화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만성적 우울 경향이 있는 병적 도박자는 세상을 부정적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인지적 경향성이 있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박을 통한 흥분과 스릴의 추구하고 함께 적절한 대처행동이나 대안제시가 어려워 병적 도박에 몰입하기도 한다(김영훈, 2005; 박정열 외, 2009; Griffiths, 1995; Kennedy et al., 2010).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도박중독의 결과로 우울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도박중독 위험성이 높은 정기적 도박자에게는 우울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취약성과 연결되고, 정서적으로 취약한 도박자들은 정서적 회피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고 한다(Blaszczynski & Nower, 2002). Khantzian(2006)은 낮은 자아존중감이 병적 도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Zheng et al.(2013)의 연구에서는 도박행동에서 돈을 배팅하는 액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자존감이 높을수록 위험행동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ille-Rimm et al.(2009)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존감은 병적 도박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국내 선행연구결과에서는 도박중독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서, 위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높았고, 병적도박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낮았다(손덕순 · 정선영, 2007).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도박중독의 결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수도 있지

만, 낮은 자존감은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으로, 높은 자존감은 보호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알코올 문제와 도박 문제가 결합될 경우 사회경제적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Potenza, Steinberg & Wu, 2005). 도박과 알코올의 관련성이 높아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 연구(Potenza, 2002)와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이 정적 상관이 있다고 한 연구(Griffiths et al., 2010; 김영경, 2013)를 볼 때 알코올 중독과 도박중독의 상관성이 높다. 2013년 새로 개정된 DSM-V에서는 병적 도박과 물질사용 장애와의 임상적,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기반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도박중독을 물질관련 장애 내 도박중독으로 분류하여(이해국, 2013), 그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알코올중독자는 만성적인 우울경향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의 회피로 도박에 빠지기 쉽다(Hamel et al, 2007; Wills et al, 2001)는 연구와 본인의 알코올중독뿐만 아니라 알코올중독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원이 도박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이영분 · 이은주, 2003; Abbott et al., 1995)를 종합해볼 때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의 관계에서 알코올중독이 도박중독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같이 도박중독을 설명하는 성격특성이론 및 인지특성이론과 정서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우울, 낮은 자존감과 알코올 중독은 도박중독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높은 자존감은 도박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인간의 일차적 환경인 가족차원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간문제에서 가족 및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그 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악화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때, 이는 도박 참여로 이끄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Lorezo et al.(1990)은 도박중독자가 돈과 물질적 소유를 강조하는 가정에서 엄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훈육을 받으면서 자라난 경우, 가정에서 정서적, 언어적, 육체적, 성적인 학대의 희생자인 경우, 부모가 도박 중독자인 경우 등의 가정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석준 · 강세현, 1996 재인용). 또한,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신영철, 2005). 반면에 도박에 빠지더라도 가족의 이해와 지지가 도박으로부터 헤어 나오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즉, 가족원의 도박중독의 결과로 가족들은 우울, 분노와 같은 정서적 문제, 부면, 위장장애와 같은 신체적 문제, 빚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 및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때 함께 치료적 도움을 구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가족이 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McCome et al., 2009). 이처럼 도박중독과 관련하여 가족의 갈등적 환경은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가족관계에서의 만족도, 원활한 가족 간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등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손덕순·정선영, 2007; Blinne-Pike et al., 2010; Griffiths et al., 2009). 따라서 다양한 가족 내의 상황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은 가족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가족관계는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거나 혹은 빠지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몇몇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도박중독과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지노출입자의 도박동기를 연구한 이태원(2004)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기존 사행산업이용자 실태보고서에서는 도박중독에 있어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있다. 성별 차이와 관련해서는 여자보다 남자가 유병률이 높으며, 연령은 50대가 가장 높았고, 직업은 무직에서, 일반 작업직, 자영업 등의 순으로 유병률이 높았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의 유병률이 높았으며, 참여빈도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이 심각하였다. 또한, 도박 접근성이 용이하거나, 도박에 대해 허용적이고 도박을 일찍 시작할수록, 도박행위를 함께 할 수 있는 동료의 수가 많고, 도박행위를 묵인하는 가족 및 친구들이 많을수록 도박중독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준강세현, 1996; 김영호, 20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1; 연미영, 2006; 장정연, 2011; Adams et al., 2007; Hurt et al., 2008; Pearce et al., 2008).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C시 소재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 이용자로 2011년 C시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 데이터가 분석대상이다. 조사기간은 2011년 10월부터 11월 까지였고 사전교육을 받은 학생조사원이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여 직접 면접을 통해 설문조사

를 실시되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권후 대기하는 사람들중 접촉이 가능하고 설문에 협조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의도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자료입력과 분석과정에서 응답이 부실한 13명을 제외한 167명을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2. 조사도구

가. 도박중독

캐나다에서 2001년에 개발된 도박중독 선별도구인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활용하였으며 국내에서 이경희(2009)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 척도는 질병모형에 기초하여 도박중독자를 선별하는 기존 척도와 달리 공중보건 차원에서 피해모형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으며 내적 합치도와 재검사 신뢰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이경희, 2009).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9개의 진단문항(PGSI: 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을 통하여 도박중독 정도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응답범위는 0점(전혀 아니라)에서 3점(항상 그렇다)까지이고 합계 점수에 따라, 0점은 비문제 도박(non-problem gambler), 1~2점은 저위험 도박(low risk gambler), 3~7점은 중위험 도박(moderate risk gambler), 8점 이상은 문제성 도박(problem gambler)으로 분류한다. 본 척도의 내적 응답 일치도(Cronbach's alpha)는 .89로 나타났다.

나. 우울

우울 척도는 Beck(1996)이 개발한 BDI-II(Beck's Depression Inventory-II)를 DSM-IV 기준에 맞도록 보완하여 김명식 외(2007)가 표준화한 BDI-II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근 2주간의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다. 응답범위는 0점에서 3점이며, 합 점수가 0~13점인 경우는 정상, 14~19점은 가벼운 우울상태, 20~28점은 중등도의 우울상태, 29~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응답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다. 알코올중독

알코올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AUDIT-K(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Korean)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WHO에서 개발하였으며 지난 1년간의 음주량과 빈도, 알코올중독 증상, 알코올로 인한 문제 등을 묻는 10문항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위는 0점에서 4점까지이다. 총 합계 점수는 40점으로 8점 이상인 경우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보며, 16점 이상인 경우는 알코올사용장애가 심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0으로 나타났다.

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4점 척도로 조사당시 현재의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존감 5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료 분석시 부정적 문항은 역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 응답범위는 1~4점까지이며 합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75로 나타났다.

마. 가족관계

가족관계는 양옥경과 김연수(2007)가 개발한 축약형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커트식 척도로 응답범위는 1~5점까지이며 합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6으로 나타났다.

바. 사행산업 이용경험 및 일반적 특성

사행산업 이용과 관련한 특성으로 최초 이용 연령, 이용 빈도, 월 평균 이용액수 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결혼상태, 수입액, 종교 등을 조사하였다.

위의 변수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구분	형태	변수명	정의
종속변수	서열	도박중독(PGSI-9)	0점(전혀 아니다) ~ 3점(항상 그렇다)
	연속	연령	단위(세)
통계변수	서열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 2 대학(교) 졸업 이하 = 3, 대학원 이상 = 4
	dummy	결혼상태	기혼(배우자 있음) = 1 기타 = 0(미혼, 사별, 이혼, 별거, 동거)
	서열	월 수입액	100만원 미만 = 1, 100 ~ 200만원 미만 = 2 200 ~ 300만원 미만 = 3, 300 ~ 400만원 미만 = 4 400 ~ 600만원 미만 = 5, 600 ~ 800만원 미만 = 6 800만원 이상 = 7
	dummy	종교	있음 = 1, 없음 = 0
	연속	최초 이용연령	단위(세)
독립변수	서열 서열	이용 빈도 이용빈도	전혀없음 = 0, 1년 1~5회 = 1, 1년 6 ~ 10회 = 2, 월 1회 이상 = 3, 월 2~3회 이상 = 4, 주 1회 이상 = 5, 주 2~3회 이상 = 6
	연속	이용금액	단위(만원)
독립변수	서열	우울(BDI)	0점 ~ 3점
	서열	알코올중독(AUDIT-K)	0점 ~ 4점
	서열	가족관계(양육경·김연수)	1점 ~ 5점
	서열	자이존증감(Rodenberg)	1점 ~ 4점

3. 분석방법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에는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분석을 통하여 변수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변수의 하위범주간 통계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증, One-Way ANOVA,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도박중독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형의 단계별로 설명력이 증가하는지, 모델별로 투입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IV. 분석 결과

1.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의 내용과 같다. 평균 연령은 46.6세(표준편차=9.17)였으며, 연령대는 40대가 38.3%, 50대가 31.7%, 30대가 17.4% 60대 이상이 7.8%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1.4%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28.3%, 중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가 7.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인 경우가 73.5%로 가장 많았고, 미혼인 경우가 15.7%, 동거인 경우가 4.8% 이혼(별거)인 경우가 4.2%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수입액은 101~2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29.7%로 가장 많았고 201~300만원인 경우가 29.1%, 301~400만원인 경우가 18.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불교인 경우가 22.4%, 기독교인 경우가 10.9% 등의 순이었으며, 전체의 57.6%는 종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인구학적 특성 분석

n = 167

구 분		명		%	
연령	20대 이하	8		4.8	
	30대	29		17.4	
	40대	64		38.3	
	50대	53		31.7	
	60대 이상	13		7.8	
	평균(표준편차)	46.60세(9.17)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13		7.8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2		61.4	
	대학(교) 졸업 이하	47		28.3	
	대학원 이상	4		2.4	
결혼상태	기혼	122		73.5	
	미혼	26		15.7	
	이혼(별거)	7		4.2	
	사별	3		1.8	
	동거	8		4.8	
월 수입액(만원) 월 수입액(만원)	100만원 이하	7		4.2	
	101~200만원	49		29.7	
	201~300만원	48		29.1	
	301~400만원	31		18.8	
	401~600만원	13		7.9	
	601~800만원	5		3.0	
	801만원 이상	4		2.4	
종교	기독교	18		10.9	
	불교	37		22.4	
	천주교	7		4.2	
	원불교	1		0.6	
	기타 종교	7		4.2	
	종교 없음	95		57.6	

2. 독립변수의 특성

독립변수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빈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사행산업 최초 이용연령은 34.71세(표준편차=11.07)였다. 이용 빈도는 연 1~5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20.3%로 가장 많았고 월 2~3회 이용자가 20.3%, 월 1회 이상 이용자가 18.4%, 연 6~10회 이용자가 15.8%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이용금액은 6십3만6천8백7십2원(표준편차=2,395,625.8) 정도였으며 개인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BDI를 통해 알아본 우울 평균은 10.61점(표준편차=1.8)이었으며, 전체의 41.9%가 가벼운 우울부터 심한 우울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DIT-K를 통해 알아본 알코올중독 평균은 11.37점(표준편차=8.42)이었으며, 이 중 알코올의존 의심자는 7.9%, 문제음주자는 23.2%, 상습적 과 음주자는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옥경과 김연수(2007)의 척도를 통해 알아본 가족관계 평균은 3.27점(표준편차=0.83)이었으며, Rod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로 알아본 자존감 평균은 2.68점(표준편차=0.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독립변수 특성 분석

n = 167

구 분		명/평균		% / 표준편차	
사행산업 최초 이용연령		34.71세		11.07	
사행산업 이용빈도	연 1 ~ 5회	44		27.8	
	연 6 ~ 10회	25		15.8	
	월 1회 이상	29		18.4	
	월 2 ~ 3회 이상	32		20.3	
	주 1회 이상	12		7.6	
	주 2 ~ 3회 이상	16		10.1	
사행산업 월 이용금액(원)		636,872.43원		2,395,625.8	
우울	우울 없음	96		58.2	
	가벼운 우울 ~ 보통 우울	25		15.2	
	보통 우울 ~ 심한 우울	25		15.2	
	매우 심한 우울	19		11.5	

구 분		명/평균		% / 표준편차	
	우울(BDI) 평균	10.61		1.8	
알코올 중독	정상 음주자	90		54.9	
	상습적 과 음주자	23		14.0	
	문제 음주자	38		23.2	
	알코올 의존자	13		7.9	
	알코올중독(AUDIT-K) 평균	11.37		8.42	
가족관계(양육경험연수)		3.27		.83	
자아존중감(Rodenberg)		2.68		.47	

3. 종속변수 특성

종속변수인 도박중독(PGSI-9)의 합점수 평균값을 <표 4>와 같이 알아 보았다. 조사 대상자의 도박중독 평균값은 9.13점(표준편차=5.74)으로 나타났다. Smith와 Wynne (2002)이 제시한 PGSI-9의 도박중독 진단기준에 의하면, 위 수치는 가장 심각한 단계인 '문제성 갬블러(problem gambler)'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중독성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종속변수 특성 분석

n = 167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도박중독(PGSI-9) 척도의 평균 값	9.13점		5.74	

조사 대상자의 PGSI-9 평균값에 따라 위험군을 <표 5>와 같이 분류하였다. 전체 중 60%가 문제성 갬블러로 나타났고 24.8%가 중위험 갬블러, 4.8%가 저위험 갬블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중독 개입이 필요한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전체의 84.8%에 달해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자 이용자의 중독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종속변수 특성 분석

n = 167

구 분		명		%	
도박중독 (PGSI-9)	비문제성 갬블러	17		10.3	
	저위험 갬블러	8		4.8	
	중위험 갬블러	41		24.8	
	문제성 갬블러	99		60.0	

주: 중독 총점이 0점인 군은 '비문제성 갬블러(non-problem gambler)'로 판단한다. 중독 총점이 '1~2.5 점인 군은 '저위험 갬블러(low-risk gambler)'로 판단한다. 중독 총점이 '3~7.5점인 군은 '중위험 갬블러(moderate-risk gambler)'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중독 총점이 '8~27점인 군은 '문제성 갬블러(problem gambler)'로 판단할 수 있다(Smith and Wynne, 2002)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독립변수간 상관 정도를 피어슨의 상관계수(Pearson's r)를 통해 <표 6>와 같이 알아보았다. 상관이 가장 높은 변수는 가족관계와 우울 ($r=-.55^{***}$), 자아존중감과 우울($r=-.55^{***}$)이었다. 즉,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우울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울은 알코올중독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43^{***}$), 즉, 우울정도가 높을수록 알코올중독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알코올중독은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과 는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알코올중독 정도가 심하고($r=-.39^{***}$),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알코올중독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r=-.31^{***}$).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는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48^{***}$).

표 6.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최초 이용연령	이용빈도	월 지출액	우울	알코올중독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최초 이용연령	1						
이용빈도	.27	1					
월 지출액	.27	.02	1				
우울	.18	.01	.21**	1			
알코올중독	.05	.03	.18*	.43***	1		

	최초 이용연령	이용빈도	월 지출액	우울	알코올중독	가족관계	자아존중감
가족관계	.08	.06	.03	-.55***	-.39***	1	
자아존중감	-.12	-.15	-.12	-.55***	-.31***	.48***	1

* $p < .05$ ** $p < .01$ *** $p < .001$

5.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을 하기 전 적합도를 감소시키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제일 높은 경우가 2.0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각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1이 전체 변량의 7%, 모델2가 12%, 모델3이 33% 정도를 설명하였다. 모델1과 모델2의 변화량은 6%이고(R^2 Change=.06, F Change=3.83), 모델2와 모델3의 변화량은 22%(R^2 Change=.22, F Change=14.01)로 나타나, 모델1과 2에 비해 모델3의 경우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정도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었다.

종속변수에 대한 개별변수들의 영향력을 <표 7>과 같이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특성만 투입한 모델1에서는 학력과 월수입, 종교가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줄고($t=-2.17$, $p < .05$),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중독정도는 높아지며($t=2.24$, $p < .05$), 종교가 있는 경우 중독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t=3.11$, $p < .01$)는 것이다. 인구학적 특성과 사행산업 이용특성을 투입한 모델2에서는 학력, 월수입, 종교, 이용 빈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이었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줄고($t=-2.08$, $p < .05$) 월수입이 높아질수록 중독정도는 높아지며($t=1.99$, $p < .05$), 종교가 있는 경우 중독정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진다($t=2.74$, $p < .01$)는 것이다. 사행산업장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증가($t=3.14$, $p < .0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과 사행산업 이용특성에 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3에서는 종교, 사행산업 이용빈도, 알코올중독,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는 경우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높아지고($t=3.23$, $p < .01$) 사행산업 이용빈도가 많을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늘어난다($t=3.13$, $p < .01$). 또한, 알코올중독

정도가 늘수록 중독정도는 늘고($t=3.84, p<.001$) 가족관계가 좋아질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낮아지며($t=-2.24, p<.05$), 자아존중감이 높아질수록 중독정도는 유의미하게 줄어든다는 것이다($t=-2.14, p<.05$). 요약하면, 위험요인 중 알코올중독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우울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요인인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은 둘 다 도박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 3이 지지되었다. 모델 설명력과 모델 간 변화량, 각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모델3이 지지되었다.

표 7.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연령	.02	.04	.45		.03	.05	.54		.01	.02	.23	
학력	-1.58	-.17	-2.17	*	-1.51	-.17	-2.08	*	-.93	-.10	-1.44	
결혼상태 (배우자있음 =1)	.16	.01	.15		-.18	-.01	-.18		.44	.03	.48	
월 수입	.62	.18	2.24	*	.56	.16	1.99	*	.44	.12	1.75	
종교(있음=1)	2.72	.24	3.11	**	2.36	.21	2.74	**	2.57	.22	3.23	**
최초 이용연령					.00	.00	-.00		.01	.01	.09	
이용 빈도					.82	.23	3.14	**	.73	.21	3.13	**
월 이용 금액					2.19	.09	1.19		7.98	.03	.48	
우울									-.02	-.05	-.55	
알코올 중독									.20	.29	3.84	***
가족관계									-1.32	-.19	-2.24	*
자아존중감									-2.20	-.18	-2.14	*
Constant	8.15				5.85				13.37			
R ²	.10				.16				.38			
Adj. R ²	.07				.12				.33			
R ² Change	.10				.06				.22			

변수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β	t	B	β	t	B	β	t
F	3.45**			3.70***			7.95***		
F Change	3.45			3.83			14.01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중 도박중독 개입이 필요한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84.8%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중독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행산업 이용특성 중에서는 이용 빈도가 도박중독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박중독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중에서는 알코올중독, 가족관계, 자아존중감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알코올중독이 심할수록 도박중독 정도가 심해지며,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도박중독 정도는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요인 중 알코올중독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우울은 본 연구의 모형에서 도박중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요인인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은 둘 다 도박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중 도박중독 개입이 필요한 중위험 및 문제성 갬블러가 84.8%로 조사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가 보고한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 80.73%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같은 보고서에서 경마, 경륜, 경정사업 본장의 도박중독 유병률을 70.13%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지역의 장외발매소가 도박중독에 매우 취약하며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에 위치한 장외발매소의 경우 이용자 및 매출규모의 총량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이나 치료적 서비스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장외발매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합법적 사행활동이 중독자를 양산하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참여증가로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외발매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과도한 배팅을 통제하기 위해 구매상한제, 자가 제한한도 설정, 구매기록 조회, 금융계좌 연계 등을 방법을 활용하여 도박중독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증설을 억제하고 축소해 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게이밍규제법(Nevada Gaming Control Act, 1995)을 통해 사행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주게이밍규제위원회(State Gaming Control Board)에서는 게임관련 인허가와 감시,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영국도 갬블링위원회(Gambling Commission)가 2005년 설립되어 사행산업 감독을 하고 있으며 갬블링법(Gambling Act)에 의해 심사, 허가 등의 업무수행은 물론, 범죄와 무질서한 갬블링을 막고 게임종류와 배팅액을 제한하며 청소년 보호와 카지노 광고를 제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c). 또한, 지방의 사행산업장 이용자중 도박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의뢰체계, 사회적응과 재활이 가능한 재활서비스 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고위험집단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 제공도 필요하다(손덕순정선영, 2007). 대표적인 정신건강의 문제인 도박중독도 지역 사회정신보건사업의 맥락 안에서 알코올중독 등 주요 중독문제와 연계하여 치료와 재활, 의뢰체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특성중 이용 빈도가 도박중독의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미열과 조옥희(2012)의 연구에서는 이용특성중 최초 시작 연령과 이용빈도가, 이민규 외(2003)의 연구에서는 이용빈도와 이용동기 등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일하게 이용빈도가 유의미한 영향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중독의 특성상 행위의 빈도증가는 중독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만큼 중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이용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외발매소도 사행산업장별로 매출 총량제를 도입하고 이용자의 전자카드 이용 의무화를 전면 실시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셋째, 알코올중독은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Potenza et al.(2005)는 알코올 문제와 도박 문제가 결합되어 매우 심각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Potenza(2002)는 특히 효과적인 도박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도박문제와 알코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동시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우림(2007)은 단도박 모임에 참여하는 도박중독자의 상당수가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장외발매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맥락에서 알코올중독 문제와 도박중독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중독관리센터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사업 중 알코올중독 예방교육의 내용을 확대하여 장외발매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도박과 알코올 등 중독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가족관계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취약성의 결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개인은 정서적 회피 방법으로 도박중독에 노출된다는 Blaszczynski와 Nower(2002)의 설명이 지지된 것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병적 도박과 관련성이 높은 만큼(손덕순정선영, 2007),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심리접근이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이민규, 2003).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와 지지는 이미 도박중독에 노출된 사람들의 적극적 치료 참여에 도움을 주는 요인이며(McCome, Lee & Sprenkle, 2014), 긍정적인 가족관계와 가족 내 의사소통은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들(손덕순정선영, 2007; Blinne-Pike et al., 2010; Griffiths et al., 2009)이 지지된 것이다. 일차적 환경인 가족과의 관계는 개인의 중독문제를 개선시키거나 예방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박중독에 노출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체계에 대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하다. 도박중독 가족에 대해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 및 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이영분이은주, 2003), 도박중독 예방차원에서도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사행산업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관련 요인을 파악하였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비확률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C지역에서만 수행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체 사행산업장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중독예방과 치료를 위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수만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범위와 내용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보호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를 중심으로 조절효과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수행을 통해 변수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 일부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가 있는 경우 오히려 중독정도가 높게 나온 것은 종교적 지지나 영성이 중독을 줄인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었지만 우울이 심할수록 중독정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변수간 관계는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이론적 논의를 충분히 하기는 힘들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변수간의 관계가 분명해 지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변수간 인과관계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후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후속연구 수행을 통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폐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준모는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 정책 및 실천, 사회복지 연구방법론 등이며, 현재 중독과 사회복지실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sung@kormu.ac.kr)

김정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나사렛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실천 및 사회복지교육 등이며, 현재 자살예방 개입 및 사회복지실천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kimjj@kormu.ac.kr)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2009). 도박이용실태 및 도박중독 유형을 조사. 과천: 한국마사회.
- 권선중, 김교현, 성한기, 이민규, 강성군(2007).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1), pp.1-19.
- 권순만, 고재욱(2013). 사행산업 폐해 예방 및 지원법 시안 연구. 스포츠와 법, 16(4), pp. 217-243.
- 김도우, 박경래, 이창무(2012). 불법 사행산업의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 행정학회보, 46, pp.12-42.
- 김명식, 이임순, 이창선(2007). 한국판 BDI-II의 타당화 연구 I: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26(4), pp.997-1014.
- 김문근(2011). 서비스 구매계약을 통한 도박중독 상담서비스 전달 사례 연구. 2011년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김석준, 강세현(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제주대학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비 지원.
- 김영경(2013). 의대생의 스트레스와 알코올중독, 인터넷중독 및 도박중독과의 관계: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1), pp.97-114.
- 김영훈(2005). 병적 도박자의 단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부천.
- 김영호(2010).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박정열, 김윤영, 유연옥, 허태균(2009). 문제성 도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 성격, 동기, 인지, 사회적 관계 및 여가 만족도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7(2), pp.113-136.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8). 사행산업 간전발전 종합계획.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a). 사행산업백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b). 사행산업 이용실태 및 국민인식 조사결과 보고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09c). 주요 외국의 사행산업 규제 및 입법경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0).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1). 사행산업 관련 통계.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2). 사행산업 이용실태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3a). 사행산업 관련 통계.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3b).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평가 보고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사행산업 건전화 종합계획.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서원석(2013).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 참여행동 및 연관성 증증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고찰. *관광학연구*, 37(8), pp.97-119.
- 손덕순, 정선영(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pp.377-407.
- 신영철(2005). 스트레스와 도박중독. *스트레스 연구*, 13(2), pp.73-76.
- 신영철, 최삼욱(2006).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병적도박. *Anxiety and Mood*, 2(2), pp.86-93.
- 양옥경, 김연수(2007). 축약형 가족관계척도 구성과 타당도 연구. *한국가족학회지*, 12(2), pp.103-129.
- 연미영(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pp.1-14.
- 오은지, 정철(2012). 사행산업 이용자의 책임도박 인지 및 적응. *관광학연구*, 36(6), pp.291-315.
- 이경희(2009). 한국판 캐나다 문제도박척도(CPGI)의 타당화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pp.667-675.
- 이민규, 김교현, 김정남(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pp.399-414.
- 이선향(2011). 한국 사행산업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치적 합의. *동향과 전망*, 81, pp.221-249.
- 이영분, 이은주(2003). 충청지역의 도박중독 실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8), pp.177-201.

- 이인혜(2004). 카지노 도박자의 성별, 게임 선호유형 및 도박의존성과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 비합리적 도박신념과 충동성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기초학문 중간발표 자료집.
- 이태원(2004). 카지노출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2), pp.173-219.
- 이해국(2013).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예방 정책. *보건복지포럼*, 200, pp.30-42
- 장수미, 전영민, 김성재(2009). 외국의 도박중독상담 전문인력 자격제도 비교: 미국, 호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연구*, 17(1), pp.53-62.
- 장정연(2011). 청소년사행행동의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7, pp.348-381.
- 조광익(2011). 사행산업의 도박중독에 관한 고찰: 평가와 성찰. *관광학연구*, 35(7), pp.51-76.
- 충남대학교(2010).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최우립(2007). 스트레스 및 대처가 도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도박 위험성과 손실만회 행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 한성열, 이홍표, 허태균, 장훈(2009). 한국사회의 도박 이용율과 이용실태 및 병적 도박 유형률: 도박종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pp.255-276.
- 현미열, 조옥희(2012). 경마장 이용객의 도박중독 관련 요인. *대한간호학회지*, 42(4), pp.589-598.
- Abott, D. S., Sheran, L., Cramer, L., Sherrets, S. D. (1995). Pathological gambling and the family: Practice implications. *Families in Society*, 76(4), pp.213-217.
- Adams, G., Sullivan, A., Horton, K., Menna, R., Guilmette, A. (2007). A study of the differences in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gambling and proximity to casino. *Journal of Gambling Issues*, 19, pp.9-17.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 Washington, D. C. : U. S. APA.
- Blaszczynski, A., Nower, L. (2002). A Pathways model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ing. *Addiction*, 97, pp.487-499.
- Blinne-Pike, L., Worthy, S. L., Jonkman, J. N. (2010). Adolescent gambling: A review of an emerging field of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 pp.223-236.

- Dickerson, M. G., Baron, E., Hong, S. M., Cotrell, D. (1996). Estimating the extent and degree of gambling related problems in the Australian population: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Gambling Study*, 12(2), pp.12161-12178.
- Griffiths, M. D. (1995). The role of subjective mood states in the maintenance of fruit machine gambling behaviour.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1(2), pp.123-135.
- Griffiths, M. D., Wardle, J., Orford, J., Sproston, K., Erens, B. (2009). Socio-demographic correlates of internet gambling: Findings from the 2007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2, pp.199-202.
- Griffiths, M. D., Wardle, H., Orford, J., Sproston, K., Erens, B. (2010). Gambling, alcohol, consumption, cigarette smoking and health: Finding from the 2007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8(2), pp.208-223.
- Hamel, A., Derevensky, J., Takane, Y., Dickson, L., Gupta, R. (2007). Adolescent gambling and coping within a generalized high-risk behavior framework. *Journal of Gambling Study*, 23, pp.377-393.
- Hurt, H., Giannetta, H. J., Brodsky, N. L., Shera, D., Romer, D. (2008). Gambling initiation in pre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1), pp.91-93.
- Ibanez A., Blanco C., Moreryra P., Saiz-Ruiz, J. (2003).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ing.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64, pp.295-301.
- Kennedy, S. H., Welsh, B. R., Fulton, K., Soczynska, J. K., McIntyre, R. S., O'Donovan, C. (2010). Frequency and correlates of gambling problems in outpatients with major depressive disorder and bipolar disorder. *La 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55(9), pp.568-576.
- Khantzian, E. J. (2006) Pathological Gambling: Etiology, Comorbidity, and Trea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5), pp.945-946
- Ladouceur, R., Walker, R. (1996). A cognitive perspective on gambling. In P. M. Salkovskis(Ed.), *Trends in Cognitive and Behavioral Therapies*, pp.89-120, New York: John Wiley & Sons.
- Lesieur, H. R., Rosenthal, M. D. (1991). Pathological gambling: A review of the

- literature. *Journal of Gambling Studies*, 7, pp.5-39.
- Lorezo, V. C., Polizer, R. M., Yaffe, R. A. (1990). *Final report task force on gambling addiction in maryland*, The Maryland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Alcohol and Drug Abuse Department.
- McCome, J. L., Lee, B. K., Sprenkle, D. H. (2009). Conceptualizing and treating problem gambling as a family issu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5(4), pp.415-431
- McCormick, R. A. (1987). Pathological gamblers: A parsimonious need-state model. *Journal of Gambling Behavior*, 3, pp.257-263.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9). *Social and economic impact of pathological gambling: A critical review*. National Academic Science.
- Pearce, J., Mason, K., Hiscock, R., Day, P. (2008). A national study of neighbourhood access to gambling opportunities and individual gambling behavior. *Journal of Epidemiological and Community Health*, 62, pp.862-868.
- Pille-Riin K., Rene, M., Kenn, K. (2009). Pathological gambling in Estonia: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self-esteem, emotional states and cognitive ability.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5, pp.377-390.
- Potenza, M. N. A. (2002). Perspective on future directions in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research of pathological gambling. *Psychiatric Annuals*, 32(3), pp.203-207.
- Potenza, M. N., Steinberg, M. A., Wu, R. (2005). Characteristics of gambling helpline callers with self reported gambling and alcohol use problem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1(3), pp.233-254.
- Smith, G. J., Wynne, H. J. (2002). *Measuring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 in alberta using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CPGI)*. Alberta Gambling Research Institute.
- Steel, Z., Blaszczynski, A. (1998). Impulsivity, personality disorders and pathological gambling sseverity. *Addiction*, 93, pp.895-905.
- Wills, T., Cleary, S., Filer, M., Shinar, O., Mariani, J., Spera, K. (2001). Temperament

related to earlyonset substance use: Test of developmental model. *Prevention Science*, 2(3), pp.145-163.

Zheng, J., Zhong, Y., Liu, Y. (2013). Effects of self-esteem level on risk preference in different task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41(5), pp.815-818.

Zuckerman, M., Bone, R. N., Neary, R., Mangelsdorf, D., Brustman, B. (1972). What is the sensation seeker?: Personality trait and experience correlates of the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 pp.308-321.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Addiction of Gambling Industry Users at Off-track Betting Place

Sung, Jun Mo

(Korea Nazarene University)

Kim, Jung Jin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isky and protective Factors that predict outcomes of gambling addiction of the gambling industry users at off-track betting place.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d 167 off-track betting place users in C city. The prevalence rates of problem and pathological gambler were 84.8%.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frequency of gambling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risky factors, alcohol addiction has the significant effect on gambling addiction. Among the protective factors, family relations, and self-estee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The directions for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the gambling industry users were suggested.

Keywords: Gambling Industry, Gambling Addiction, Risk Factors, Protective Factors